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북한군 도시지역공격작전에 관한 연구

-4세대 전쟁 적용을 중심으로-

2016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김 관 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시성

북한군 도시지역공격작전에 관한 연구

—4세대 전쟁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 Army's Urban Area Assault
Operation: Focused on 4th Generation Warfare Utilization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김관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시성

북한군 도시지역공격작전에 관한 연구

—4세대 전쟁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 Army's Urban Area Assault
Operation: Focused on 4th Generation Warfare Utilization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김관우

김관우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북한군 도시지역공격작전에 관한 연구 - 4세대 전쟁 적용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김 관 우

최근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4세대 전쟁 및 도시지역작전 이론에 대해 고찰하고 북한군의 전략·전술 변화에 따른 4세대 전쟁 적용 가능성과 전쟁수행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여 한반도 전장환경 및 북한의 전략변화를 고려한 북한군 도시지역작전 양상을 제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 및 연구자료와 최근 북한의 전략·전술 변화를 통해 북한은 과거와 같은 재래식 전력에 의존한 전쟁을 수행하기 제한될 것이며 제한전쟁 후 정치적 협상으로 전쟁을 종결지으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북한군의 전쟁에 대한 양상 변화와 한반도의 도시화 등의 작전환경 변화, 그리고 세계적으로 현대전에서의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 시 북한군이 추구하는 제한전쟁은 단기속결전 및 배합전이라는 전략을 고수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지역을 점령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양상은 북한군의 단기속결전에 의한 한반도 석권이라는 것에 고착되어 도시지역을 우회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북한군의 능력과 전략변화를 고려할 때 제한전쟁의 형태로 진행되어 전략적 도시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볼 때 가장 큰 핵심은 4세대

전쟁 및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이 이러한 4세대 전쟁을 그들의 변화된 전략에 맞추어 도시지역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에는 부대 운용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전략적 도시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양상에서의 북한군은 기갑 및 기계화부대를 통하여 도시를 우회하여 중심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점령을 위한 주력부대로 운용할 것이며, 또한 특수작전부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지역에서의 정치적·심리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할 것이다. 특히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중심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된 경보병사단은 도시지역작전에서 경량화된 보병의 역할을 수행하며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세대 전쟁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보병사단 등 특작부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 양상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나 특작부대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되었으며, 경보병사단 훈련에 대한 첩보도 부족하여 경보병사단의 도시지역작전에서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에 대해서는 첩보가 제한되어도 전략·전술 변화와 최근 적 상황, 그리고 김정은 교시 등을 통한 추론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요어】 도시지역공격작전, 전쟁양상, 제 4세대 전쟁, 북한군, 경보병사단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도시지역작전 이론	4
제 2 절 도시지역작전 수행 관련 교리 분석	8
제 3 절 제 4세대 전쟁 이론	11
제 4 절 북한군이 적용하고 있는 제 4세대 전쟁 개념	19
제 3 장 도시지역에서의 북한군 위협	24
제 1 절 도시지역에서 북한군 위협 증대	24
제 2 절 북한군 특수전부대 도시지역작전에서 운용 가능성	28
제 3 절 도시지역의 취약성 및 작전에 미치는 영향	32
제 4 절 한반도 전장상황에서 도시지역공격의 타당성	34
제 4 장 북한군 도시지역작전 양상	35
제 1 절 특수전부대 임무 및 전투수행양상 차이점	25
제 2 절 경보병사단의 전투수행양상 분석	39
제 3 절 도시지역작전에서의 경보병사단 운용 방안	41
제 4 절 제 4세대 전쟁을 적용한 북한군 도시지역작전 양상	42

제 5 장 결 론	48
-----------------------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48
------------------------	----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49
---------------------------------	----

참고문헌	51
------------	----

ABSTRACT	53
----------------	----



표 목 차

<표-1> T. X. Hammes 의 각 세대별 전쟁 변화 요인	15
<표-2> T. X. Hammes 의 4세대 전쟁 사례별 특징	18
<표-3> 북한의 대표적 대남혁명전술	19
<표-4> 제 4세대 전쟁 특징 분석	22
<표-5> 특수전부대 변천 과정	28
<표-6> 경보병여단과 경보병사단의 차이	38



그 림 목 차

<그림-1> 경보병사단 편성	40
<그림-2> 경보병사단 작전조 운용	4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한반도 전장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도시지역에서의 작전수행 빈도가 증가하고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현대 전쟁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대치하고 있는 직접적인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 양상에 대한 교리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도시지역작전에 관련해서는 적인 북한군에 대한 연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군 전술에서도 교리와 야전 모두 연구와 발전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적의 도시지역작전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판단과 공격양상이 도출되어야 아군 전술이 더 쉽고 발전적으로 교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 공격 양상에 대한 세부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제 4세대 전쟁을 적용한 각국의 교리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쟁 양상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모택동으로부터 시작된 제 4세대 전쟁의 개념은 현대 전쟁의 일부나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추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제 4세대 전쟁에 대한 전술 및 작전적 측면 뿐 아니라 전략적 수준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 4세대 전쟁을 적용한 다양한 작전수행 양상에 대한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제 4세대 전쟁을 가장 잘 적용하고 있고, 이 제4 세대 전쟁을 수행시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쟁수행 양상에 대하여 적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 4세대 전쟁의 개념과 경보병사단 등 특수전부대의 훈련 및 전투수행양상을 고려하여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작전 양상을 조금 더 구체화 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지역의 다양성을 고려 시 일반화 또는 단순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 후방지역작전의 도시지역 방호작전에 해당하는 북한군의 위협은 배제하며 주로 전방군단 경보병사단의 전투수행이 예상되는 한강 이북 대도시 또는 전략도시 지역에서의 북한군 공격작전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북한군은 과거로부터 중공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대 전쟁의 교훈을 통해 약소국으로서 강국인 미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꾸준히 제 4세대 전쟁을 적용한 전쟁수행을 꾀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전에서의 제 4세대 전쟁의 실효성을 충분히 느낀 북한은 제 4세대 전쟁을 통해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위협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수단적인 측면에서 제 4세대 전쟁을 적용하기 용이하며, 북한이 비대칭전력의 하나로 자랑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특수전부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현재는 약 20만 명의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단의 창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경보병사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더 심도 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교리 측면에서는 경보병여단 및 저격여단과 유사하게 특수전 부대의 성격을 가지고 습격의 임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평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계화부대의 중심기동 여건보장을 위한 부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교리가 변경되었다. 경보병사단이 기본적으로 중심성과확대부대의 여건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직 추가적인 적서가 확보되지 않고 관련 첩보가 제한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전략 목표가 한반도에서의 신속한 중심기동이 아닌 제한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국지전에서의 정치적·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여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전반적인 작전 양상에 대하여서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전 초 집단군을 비롯한 강력한 포병 화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서울이나 한강 이북 지역에서의 전략적 도시를 점령하는 모습으로 전개된다면 분명 집단군의 전술적 2제대나 작전적 2제대가 도시를 우회하여 중심으로 기동하려고만 하지

는 않을 것이며, 기동력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도시로 진입하여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계화부대의 중심성과 확대를 보장하는 경보병사단은 도시지역작전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의 북한군 교리에서도 기술되어 있듯이 군단의 경보병여단 및 저격여단은 특수전부대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지역에서의 주요 요인 암살이나 타격, 그리고 습격 등을 통하여 도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한국군의 지휘체계를 마비시켜 북한군 주력의 도시 진입 이전에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지역작전에 대한 경보병부대 등 특수전부대의 역할 및 전투수행방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방법은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군 교리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연구자료와 기존의 북한군 경보병사단 등 특수전부대 운용 및 도시지역작전 양상을 위해 고민했던 다수의 군사평론지 및 연구 자료를 폭넓게 참고하였다. 또한 정보분석 분야에서의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과 기존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북한군 작전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도시지역작전 이론

1. 전장으로서의 도시지역 의미와 환경

도시지역은 이제 하나의 도시가 새로 건설되고 생겨나는 추세를 벗어나 기존의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고 통합되는 광역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수도권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화 추세를 볼 때 특히 우리나라의 서부축선과 같은 경우는 인천~서울~의정부로 이어지는 도시지역 벨트가 형성되어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세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방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한 반면 도시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유엔은 2014년 현재 한국의 도시화율이 82.4%이며, 2050년에는 87.6%까지 치솟아 9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²⁾ 이러한 도시의 무분별한 성장과 광역화 추세는 많은 군사 작전선을 차단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서부축선과 같은 경우 군사적 우회작전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주민의 소개 또한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전투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에서 목격한 대량 파괴와 살상의 정도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도시권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인공구조물이 밀집되어 관측과 사계, 기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전자장비나 통신장비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도시지역에는 민간요소가 결집되어 있다. 무력의 행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쟁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문제는 간단해질 수 있으나 실제 전쟁이 수행되어지는 모습은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곧 전쟁으로 인한 우리 인류의 불행과도 이어져 왔다. 앞으로

1) 김인수. (2000). “미래 도시지역 작전 시 효율적인 전투수행 방안 연구”, p.4.

2) 유엔 인구국. (2014). 『세계 도시화 전망』

의 전쟁에 있어 도시지역에서의 전투를 회피하고 싶지만 불행히도 쉽게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미래의 전쟁에 있어 주 전장은 바로 도시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이며, 도시의 광역화 추세를 볼 때 이는 피할 수 없는 당면한 현실이다.

2. 장차전의 양상과 도시지역작전 영향요소

미래의 전쟁은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치가들과 전략을 기획하는 전략가, 전쟁을 지도하고 수행하는 많은 군사지도자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 목적을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할 경우에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미로 속에서 올바른 길을 바로 찾아 나갈 수 있는 해안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래의 도시지역작전에 있어서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도시는 군사 및 정치투쟁의 중심지로서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전쟁사를 분석해보면 도시가 그 나라의 중심인 것은 분명하였지만 그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인 전투는 도시외곽에서 진행되었다. 즉 과거에는 도시를 온전하게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지역 전투를 가능한 회피하였고 지상군은 도시지역 전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텅 빈 도시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교리가 개발되었다.³⁾

장차전을 예상할 때 전략적인 상황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미래의 군대가 수행해야 할 전장의 문제이다. 전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전장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 전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전을 논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전장으로의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작전과 비도시지역작전을 구분 짓는데 필요한 두 가지 특성은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과 주민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이 곧 도시지역

3) Lester W. Grau, Jacob W. Kipp (2000). 『Urban Combat』 . 교육사, p.6.

작전의 영향요소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미래 도시지역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들은 물적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지휘관들은 상급지휘관의 의도와 상급부대의 작전명령 속에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작전의 목적을 도출해야 하고 도출된 목적에 따라 전투수행의 범위를 한정짓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도시 내의 주요지점과 적의 진지를 식별해내야 한다. 마치 미로와도 같은 도시속에서 임무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을 신속히 찾아내야 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그들이 최초 계획한대로 작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시라는 전장환경의 극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도시지역작전의 양상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지역전투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도시지역작전은 다양한 강도와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다. 공격과 방어의 작전형태를 가진 정규전 부대가 도시를 탈취 또는 확보하기 위해서 전투를 할 수도 있고 위험한 도시지역으로부터 민간인을 구출하기 위해 개입하는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지역경찰이 통제를 상실하거나 범죄 집단 혹은 상대 파벌집단이 도시를 선점한 경우 평화유지부대의 활동이 포함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전쟁사에 있어서 고강도 도시지역 전투수행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작전, 수많은 병력과 물자, 탄약, 장비를 필요로 하였으며 도시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공자는 전투 및 비전투손실의 대량 발생 및 수많은 물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전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낮은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었고, 전투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공자나 방자 모두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 및 난민의 발생, 그리고 도시의 파괴로 이어져 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재앙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가지 전투장면이 TV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생생히 방영되면서 무기체계와 과학과, 정밀화를 통해 첨단 C4I전을 상상하던 대중들에게 파괴적이고 잔학하고 참혹한 전쟁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전쟁을 계획하는 정치지도자 및 군사지도자들에게 도시지역에서의

전투는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지역,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도시 진입을 회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오늘날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 즉 저강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정규전시에도 도시 게릴라와 테러리스트 및 잔적들과 같은 위협세력들은 도시지역을 투쟁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전투의 횟수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냉전 이후 더욱 복잡해진 원정군으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Urban Combat⁴⁾을 포함하며 이를 지옥에서의 전투(Combat in Hell)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도시지역에서의 전투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되도록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도 없는 군사적 딜레마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과거의 전쟁사를 분석해보면 지상전투가 전개되는 장소는 통상 야지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장소에서 전투가 벌어지거나 도시전체가 전장이 되어 시가지에 군대가 진입하여 싸웠던 적도 드물었고 전장의 보편적인 개념은 야지라는 인식이 굳어져 왔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발달되고 확대되면서 도시지역도 전쟁과 무관할 수 없게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때는 도시에서 전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도시에서의 결정적인 전투가 전개되기도 하였고 그 이후로는 도시전의 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장차전에서 도시지역 전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도시지역을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없을 때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서부축선과 같이 자연적으로 도시벨트가 형성되어 있어 이를 우회하는 기동공간이 현저히 제한될 경우나 인접하고 있는 도시와 도시지역 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단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도시지역으로 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작전지역 내에서 도시 자체가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중요한 지역으로의 가치가 있는 경우이다. 작전의 목적 면에서 볼 때 도시지역을 확보해야 만이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구현하고 상급부대 작전목적에 기여하며 부여

4) Urban Combat 이란 용어는 한국군에서는 건물지역전투, 시가지 전투, 후방지역 도시지역 작전이라는 다양한 용어로 해석되나 미군에서는 도시지역작전, 도시지역전투로 사용한다.

5) 김인수,(2000) 전계서

된 임무를 완수하게 될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것이 장차전에서 더욱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 자체가 동서남북으로 발달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어 병참선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증대되기 때문이다.

셋째, 군사적인 목적을 뛰어 넘어 정치적인 목적 하에 도시를 확보해야 할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상대방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집결되어 있고 많은 사회 기반시설과 민간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 시 그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제 2 절 도시지역작전 수행 관련 교리 분석

1. 북한군 도시지역작전

현재까지 적서나 기타 첩보를 통해 인식하고 있는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작전은 그들의 일반적인 공격작전과 유사하다. 도시지역을 전진과정에서 공격하는 방법과 짧은 준비 후에 공격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전진과정에서 공격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실시하고 실패시 짧은 준비 후에 공격하는 방법을 실시하도록 한다. 공격시 최근임무는 한국군 1세대 부대를 소멸하고 도시외곽의 중요한 지형지물까지 포함하여 도시 전체를 점령하는 것으로 부여한다. 공격진행은 먼저 선견대를 파견하여 비행대 및 포병화력의 지원으로 외곽의 고지를 선점하고 도시지역 내부로 진출입로를 먼저 차단한다. 동시에 우회대를 이용 신속히 도시지역 반대편의 외곽으로 통하는 중요한 기동로와 도하지역 등을 차단하여 한국군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한다. 이는 도시전체가 하나의 포위소멸구역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를 포위하면 특수작전부대가 도시 내를 진입, 일부구역을 장악하여 근거지를 마련한 후 한국군을 교란시키거나 혼란을 조성하며 대부대의 공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이후 포병과 항공기의 화력지원 하 선견대에 의해 보전협동공격으로 도시 내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점령한다. 발판이 확보되면 1~2개의 주요 간선도로들을 이용하

여 주력부대가 돌파를 하고 신속히 도시를 점령한 후 소부대에 의한 잔적소탕이 이루어진다. 이는 돌파의 전투행동으로 기동로를 우선 개방하여 후속부대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이후 잔적을 소탕하는 식으로 실시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단계화하면 도시지역 포위 → 도시 내 교란 및 혼란조성 → 공격발판 점령 → 돌파 및 확보 → 잔적 소탕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작전의 특징은 도시지역을 포위할 때까지는 일반적인 공격작전 형태로 진행하여 도시전체를 포위소멸구역으로 형성하고 포위지역에 대한 공격은 보전협동으로 돌파하여 도시를 확보한다는 것이다.⁶⁾

2. 미군 도시지역작전

미군의 도시지역작전은 세계대전시 뿐만 아니라 베이루트, 소말리아, 이라크 등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고 이에 대한 전훈을 분석해 교리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발전을 도모해 왔다. 미군의 도시지역작전 교리에서는 각각의 도시작전이 유사한 타입의 도시작전 일지라도 다른 환경 때문에 서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였다.⁷⁾ 따라서 교리와 실체는 차이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군의 교리적인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⁸⁾

첫째 각종 다양한 도시의 위협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이들의 다양한 결합으로 그것들과 직면하게 될 것을 알려준다. 이는 미군의 도시지역작전의 제 3장에서의 도시의 위협에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 적의 작전적 원칙, 접근 거부, 우수한 기술 중립화, 속도통제, 분쟁의 특성 변화, 은신처의 불허, 분산과 분권화 작전수행, 도시 위협전술, 이점을 위한 인구 활용, 정보전의 승리, 중요한 설비조작, 모든 자원의 활용, 도시에서 지원된 무기 사용, 전체 적군과 교전, 일반적인 불안정, 질명과 오염 등으로 구분 설명하고 있다.

둘째, 도시작전이 전체 임무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작전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작전평가를 위한 분석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제 4장 도시지역 작전속고에서 군 지휘관이 그들의 작전에 대한 도

6) 이광우. (2004). “북한군 전술 주요쟁점 교리 연구”, 『군사평론』 제 364호.

7) 임일용 역. (2004). 미 야전교범 3-06 『도시지역작전』. 육군교육사령부.

8) 박정구.(2003). “한반도에서 미래 지상작전 수행 발전방향 연구(이라크전을 중심으로)”.

시지역의 적절성과 충격의 평가가 필요하고 임무를 완수하는데 전반적인 도시작전이 꼭 필요한지를 결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도시안정화작전과 지원작전, 도시지역 전투근무지원을 공격작전과 방어작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실제 작전과 비교할 때 안정화작전과 지원작전, 전투근무지원의 중요성을 그만큼 실감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3. 독일군 도시지역작전

독일군은 과거에는 도시는 산악 등과 같은 특수지형 또는 우회해야 할 장애물로 인식하고 주요 교전대상은 정규군이며 적을 섬멸한다는 목표로 작전수행을 한 반면 현재는 도시를 지형, 인구, 기반시설의 복합적이고 다이나믹한 상호작용의 지형으로 인식하고 주요 교전대상은 비대칭위협적이며, 안정화작전을 위해 부분적으로 적을 섬멸하는 공간통제의 개념으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발전되고 있다.

공격작전의 교리를 보면 우회기동과 직접공격으로 구분하는데 통상 전투력 절약을 위해 가능한 도시지역을 우회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수행한다면 특히 평화유지를 위한 안정화작전시에는 도시지역의 비대칭위협이 상존하여 우회기동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위협이 있는 곳에서 결정적 작전수행을 위해 직접공격을 실시한다. 직접공격시에는 도시지역에서 단일 부대에 의한 단일작전을 수행한다. 세부 공격방법을 살펴보면 간접접근 공격, 선별된 목표물 위주 공격,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간접접근 공격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적이 강하고 아군의 피해가 적어야 하며 가용시간과 부대가 비교적 많은 경우에 실시하며 도시를 포위하여 고립시키고 외부로부터 봉쇄를 실시하여 기습공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개념이다.

선별된 목표물 위주 공격은 정보는 충분하나 가용시간과 부대가 충분하지 못 할 경우에 실시하며 도시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목표를 식별하여 기습적으로 신속하게 탈취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공격하는 방법은 도시 전 공간을 통제

하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용부대가 충분한 반면 가용정보 및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실시한다. 이는 지역별 단계적으로 목표를 점령한 후 다음 공격지역으로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4. 영국군 도시지역작전

영국군은 미군, 독일군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점령을 위한 작전시 절약을 위해 가능한 도시지역을 우회한다는 것이 상호 공통점이며, 차이점은 우회가 여의치 않거나 상황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면 병력절약을 위해 적의 방책을 제한하는 목표에 대하여 치고 빠지는 식으로 공격하여 적의 분산을 유도 후 선별된 목표물 위주로 공격한다.

제 3 절 제 4세대 전쟁 이론

1. 제 4세대 전쟁 개념 및 주요 특징

제 4세대 전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미국의 군사평론가 윌리엄 린드다. 1989년 린드 외 4명의 미 육군·해병대 장교들이 미 해병대가 발행하는 「해병대 관보(원제 : Marine Corps Gazette) 1989년 10월호를 통해 발표한 “변화하는 전쟁의 얼굴 : 제 4세대를 향한 전환(원제 : The Changing Face of War : Into the Forth Generation)”이라는 기고문에서 최초로 이 개념이 등장했던 것이다.⁹⁾ 린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어져온 군사상의 기술적·사상적인 발전은 17세기 전반기에 벌어졌던 30년 전쟁(1618~1648년)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 조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조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국가의 개념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각국의 정부의 최고 권위체로서 해당국가 내부의 모든 무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군사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린드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전개된 300여년 동안의 군사발전 과정이 3가지의 각기 다

9) 9.11 테러 사태 직후인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미군 부대가 아프가니스탄 내의 알카에다 지하 은신처에서 린드의 “변화하는 전쟁의 얼굴 : 제4세대를 향한 전환” 사본을 발견한 바 있다. 이는 알카에다 측에서도 자신들의 반비 테러활동 수행을 위해 린드의 ‘제4세대 전쟁’ 개념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주목을 받았다.

른 세대별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이를 1·2·3세대 전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린드가 새로이 제시하는 제 4세대 전쟁은 기존 정부-국민-군사의 삼위일체에서의 이탈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서는 더 이상 주권 국가가 무력을 독점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의 전쟁수행 주체와 무기, 전략·전술이 병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린드는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전방과 후방, 군사와 민간 분야, 심지어는 전쟁과 평화 사이의 구분조차 불명확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린드가 제시하는 제 4세대 전쟁은 과거 300여년 동안 군사 분야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정부-국민-군사의 삼위일체가 약화되는 비(非)삼위일체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이는 전쟁을 비롯한 각종 군사적 대립 및 분쟁을 구성하는 주체, 대상, 수행방식, 전장공간, 그리고 수단 등이 이제까지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임을 뜻한다. 제 4세대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군사력 사용의 1차적인 표적이 적의 군사력 자체보다 적이 전쟁수행을 지속하는데 요구되는 물질적인 능력, 의지와 직결되는 대상을 주로 선호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전방에 위치하는 적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섬멸하거나 전방을 우회 및 돌파한 후 적의 전쟁수행 체계를 마비시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지향했다. 반면 제 4세대 전쟁의 경우 전방에서 적 군사력과 맞서는 것보다는 주로 후방의 민간·비군사 시설과 인구 밀집지역을 겨냥하여 공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적의 전쟁수행 능력 및 의지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방과 후방이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동안의 전장공간 구분도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점차 의미를 잃게 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소부대 단위에 의한 전략·전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30년 전쟁 이후 벌어진 주요 전쟁들은 선형·밀집 대형에 의한 근접전(1세대 전쟁), 화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방어 중심의 장기 소모전(2세대 전쟁), 기계화된 무기들이 주도하는 기동전(3세대 전쟁)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전쟁은 공통적으로 수천 내지 수만 명 단위의 여단 및 사단, 군단급 대부대들을 통해 수행되었다. 하지만 제 4세대

10) Thomas X. Hammes 著. 하광희·배달형·김성걸 譯. (2010). 『21세기 전쟁: 비대칭의 4세대 전쟁』.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전쟁의 관점에서 대규모의 병력 보유는 신속한 임무수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적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신속한 이동 능력, 자유로운 분산 등을 통해 기습효과를 극대화하고 기동성 및 생존성이 뛰어난 소규모 부대들을 통하여 수행되는 비정규전, 특수작전이 보다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군사력에 대한 주권국가의 독점력이 약화되고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쟁과 평화, 혹은 군사와 비전투·민간 분야 사이의 구분마저 모호하거나 무의미해지는 경향이 심화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강화는 여러 군사적 분쟁으로 인해 여러 개인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안보위협을 일상적인 현상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며, 그 결과 지속적인 전쟁수행을 위한 물리적 역량 및 의지의 중요성이 외형적인 군사력 이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수가 지향하는 전쟁수행의 정당성을 확신시키거나 그 반대로 적의 전쟁수행 의지에 동요 및 불안을 획책하는 정치선전·심리전, 그리고 후방 및 분쟁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평화유지, 안정화·민사작전 등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MOOTW : Military Operations Others Than War)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¹¹⁾

전략적 측면에서 이전에는 적의 군사력이나 군대의 복원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이었으나 제 4세대 전쟁은 적 정책결정자들의 심리에 직접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이전 세대의 전쟁과 달리 필수적인 전쟁수행기반시설의 건설이 불필요하며 제 4세대 전쟁 수행은 규모,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사활적 이익이 없는 강대국과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약소국간의 대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작전적 측면에서 적의 의지를 분쇄하기 위해 취약성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전술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게 되며, 메시지나 네트워크, 메시지의 유형, 메시지 전송을 위한 행동을 결정한다. 즉 제 4세대 전쟁의 작전적 지휘관들은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자신에게 가용한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의 유형,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폭력적 또는

11) 이주학. (2011). 『북한의 위협과 전략전술의 변화(4세대 전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p.28

비폭력적 행동,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피드백 시스템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전술적 측면에서 제 4세대 전쟁은 복잡한 저장도 분쟁의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즉, 각종 메시지들은 전략적 주제에 기반하여 일상적인 사회에서 가용한 자원과 수단들을 사용하여 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전술적 행동으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제 4세대 전쟁은 시간적 흐름에서 장기전이며, 조직들이 관념들로 통합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적 정치지도부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표적들은 다양한 청중들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이정표들이다. 이와 같은 제 4세대 전쟁으로의 변화요인은 정치·경제·사회·기술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먼저 정치적 요인으로는 탈냉전이후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각종 국제기구나 테러 및 마약 단체, 심지어는 체제 불평불만 집단 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제관계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20세기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통해 장거리 통신비용이 급격히 저렴해짐에 따라 국제무대의 행위자간에 통신을 위한 채널들이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셋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한 각종 언론의 성장과 영향력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소위 “CNN 효과”라고 불리는 것으로 미디어의 힘에 의해 정책결정자들이 정책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기술적 요인으로 지난 60년간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는 ‘정보혁명’을 일으켰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지식의 특징으로 인해 보다 분산되고, 다차원적이며 비선형적이고 모호한 정보시대 위협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1세기 전쟁의 속성도 전통적인 계층적 조직보다는 네트워크적 형태의 조직을 촉진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군사력보다는 정보와 통신과 같은 무형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제 4세대 전쟁의 특징은 적의 군대를 패배시킴으로써 승리하려고 하지 않고 적 정책결정자의 의지 및 심리를 공격하여 굴복시키려는 전쟁인 것이다. 이는 초국가·초수단·초영역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군사적 수단뿐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 수단을 모두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시와 평시, 군인과 민간,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모호하고

장기가 소요 가능성이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보이면서 작전적·전술적 실패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표-1> T. X. Hammes 의 각 세대별 전쟁 변화 요인

구분	1세대 전쟁	2세대 전쟁	3세대 전쟁	4세대 전쟁
정치	민족-국가 발전	국가권력 증대	민족-국가 체제	국제 행위자 / 비국가 행위자
경제	농업·수송 분야 발전	산업화	경제 대공황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 증대
사회	애국심의 발로	애국심의 확대	애국심	국제사회화
기술	활강식 소총 장거리 통신	철도 시스템 전신의 발전	기동력 증대	네트워크화
사례	나폴레옹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현대 전쟁

* 출처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1세기 제 4세대 전쟁』 . p.87.

1. 제 4세대 전쟁 전례 및 발전

가. 중국의 인민전쟁

T. X. Hammes는 「21세기 제 4세대 전쟁」에서 중국의 인민전쟁을 ‘제 4세대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민해방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목적 달성을 최우선한다는 것이다.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술과 작전을 창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적당한 대의명분을 제시하여 대중을 규합하는 것이다. 루이진을 근거지로 하여 토지개혁 단행으로 농민의 지지를 먼저 획득하였고 대장정 이후에는 대일항전을 호소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즉 대의명분을 이용하여 현 체제의 광범위한 불만세력을 포섭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셋째, 현 체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것을 교묘히 활용하였다. 정부와 인민간의 반목을 조성하여 세력 확장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¹²⁾ 넷째, 통일전선 전략을 추구하였다.

12) 육군본부 『세계유격전사』 . pp.121~133.

주적을 선정한 후 이에 반대하는 모든 대상을 규합하였고 주적을 제거한 후에는 제 2의 주적을 타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다섯째 인민의 전면적 전쟁을 실시하였다. 모든 인민이 적극적으로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대는 성심성의로 인민에 봉사하는 개념을 추구한 것이다. 여섯째, 자신의 전략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피·아의 전투력을 고려하여 지구전 전략과 16자 전법을 창출하였으며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장점을 살려 적의 약점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지역에서 국부군을 깊숙이 유인하여 병참선을 차단하고 섬멸하는 전과를 세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상 교육으로 당의 지도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장정간에도 매일 2시간씩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한 것이다.¹³⁾ 또한 마오는 인민해방전쟁을 하면서 도시를 강조하는 전략을 지속 강조하였다. “주요 도시를 탈취하지 않으려는 과거의 전술은 변화되어야 한다.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한 그리고 도시 민중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한 주요 도시를 공격하고 점령해야 한다. 대도시를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 전략이 노동자, 농민, 그리고 군인들의 투쟁과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추진된다면 거대한 혁명적인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¹⁴⁾ 즉 제 4세대 전쟁의 특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민해방전쟁에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강조하면서 도시에 대한 점령과 정치적 활용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베트남 전쟁¹⁵⁾

호찌민의 베트남 전쟁은 마오의 인민해방전쟁론을 실정에 맞게 개선시킨 전쟁이었다. 다양한 정보채널을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의지에 대한 직접 공격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미군의 잔악성과 월남정부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선전으로 미국 내부에서의 반전여론을 유도하였다. 또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꾸준히 전략·전술을 개선하는 융통성을

13) 국방연구소. 『중국인민해방군사』.국방연구소, pp.165~170.

14)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1세기 제4세대 전쟁』, p.62.

15) 육군본부, 『세계유격전사』, pp. 272~287.

발휘하였다. 뗏공세(1968년), 춘계공세(1972년) 실패 후 즉각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마오의 인민해방전쟁과 같이 적절한 대의명분으로 지지획득 및 통일전선을 구축하였다. 독재에 의존하는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고 모든 반정부세력을 규합하여 내부혼란을 조성하고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에 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술적 상황을 정치적 목적 달성에 적절히 활용하였는데 모든 작전은 정치적 신뢰와 투쟁심 고취에 기여하도록 시행하였고 작전결과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교묘히 변조하였다.

다. 니카라과 내전¹⁶⁾

니카라과 내전은 산디니스타에 의해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1985년 공식정부를 발족하였던 전쟁이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게 변신하는 융통성이 돋보인 전쟁으로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종교·이념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적을 고립시키고 국제적 지지기반을 구축하면서 온건파를 활용하여 비공산권으로부터 외부지원을 보장받았다. 한편 당이 배후에서 실질 권력을 장악하고 온건파와 권력을 미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신부 등 온건파는 단지 도덕적 우위를 제공받기 위한 걸치레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마오의 인민해방전쟁과 해방신학, 그리고 도시 분란전을 적절하게 취합하여 제 4세대 전쟁개념을 진전시켰으며, 최종적으로 군사공격이 아닌 정치적 노력으로 정부를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제 4세대 전쟁의 모습을 보여준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먼저 수행주체 면에서 알카에다, 탈레반 정권, 이슬람 근본주의자, 주민 등이며 밀수입자, 마약상인, 파슈툰족 등 다양한 세력과 연계하여 적의 실체가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장의 범위는 아프간과 미국령의 공관 선박 뿐 아니라 인터넷 등 초국가적 범위로 확대된 것이

16)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1세기 제4세대 전쟁』, pp.97~98.

특징이며 전쟁의 수단면에서는 재래식 군사력인 소총에서부터 미사일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인터넷 등 언론 매체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병력운용은 네트워크화된 다양한 점 조직을 활용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전체에 분산된 소규모 집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알카에다의 경우에는 6개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다. 명령체계와 기동성이 우수하여 첨단정보기술과 운송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아래의 <표-2>는 T. X. Hammes가 제시한 ‘제 4세대 전쟁’ 사례의 특징을 나열한 표이다. ‘전쟁 행위자’, ‘결전수행’, ‘전쟁유형’ 그리고 ‘전쟁 결과’ 등 ‘4세대 전쟁’의 주요한 특징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통해 비교한 것이다.

<표-2> T. X. Hammes 의 ‘4세대 전쟁’ 사례별 특징

구 분	전쟁 행위자	결전수행	전쟁유형	전쟁결과
모택동의 인민전쟁	비국가 행위자(공산당)	○	혁명전쟁	성공
	국가 행위자(국민당)			
베트남전	국가 행위자(월맹)	○	정규전	성공
	국가 행위자(남베트남 + 미국)			
신디니 스타	비국가 행위자(FSLN)	×	혁명전쟁	성공
	국가 행위자(니카과라 정부)			
인티파다	비국가 행위자(인티파다+PLO)	×	반란전	실패
	국가 행위자(이스라엘)			
알카에다	비국가 행위자(알카에다)	×	테러리즘	실패
	국가 행위자(미국+다국적군)			
아프간 전쟁	다수(텔레반 등 5개 부족+ 미국 + 주변국)	×	내전	진행중
	다수(북부동맹 등 15개 부족 + 알카에다 + 주변국)			
이라크전	다수(시아파 + 수니파)	×	내전	실패
	다수(미국 + 시아파)			

* 출처 : 최한수, “제4세대 전쟁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연구.” 「합동대학교」 (2013). p.16.

제 4 절 북한군이 적용하고 있는 제 4세대 전쟁 개념

북한의 제 4세대 전쟁 적용은 대남 혁명전략전술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¹⁷⁾ 대남혁명전략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으로 민족해방은 미제를 한반도에서 축출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는 것이며,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의지이다. 이것은 노동당 규약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대남혁명전략을 위한 대남전략기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으로 북한혁명역량 강화, 남한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 강화이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 북한 4대 군사노선으로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 장비의 현대화인 것이다. 북한은 대남 혁명전략을 위한 대남혁명전술로 조직전술, 투쟁전술, 유화전술, 협상전술, 표어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표-3> 북한의 대표적 대남혁명전술

구 분	특	징
조직전술	· 지하당 구축 전술	· 통일전선전술
투쟁전술	· 경제-정치 투쟁 전술	· 폭력-비폭력 투쟁 전술
유화전술	· 대화전술 · 평화공존전술	· 유화 제스처 전술 · 협력교류전술
협상전술	· 기선제압 전술 · 전제조건제시 전술	· 근본문제제기 전술 · 벼랑끝 전술
표어전술	· 선동슬로건의 합전술	· 폭로전술

* 출처 : 육군대학. (2010). 『군사평론-북한군 전술교리의 과학적 분석』, p.87.

17) 국방일보. “해방정국에서의 4세대 전쟁” (2012. 10. 4)

그 중 대표적인 대남전술에는 지하당 구축 전술, 통일전선 전술¹⁸⁾, 대중투쟁전술, 선전선동전술이 있다. 지하당 구축전술은 남한 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한 조직을 육성하고 테러 및 반정부 활동 등 폭력·비폭력 활동의 주체를 양성한다. 직접적 폭력활동에 필요한 남한 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사시 전장영역을 남한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통일전선 전술과 대중투쟁 전술, 선전선동 전술은 투쟁을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술로써 민족과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내세워 반대세력을 고립시키고 타도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세력은 반 통일 세력으로 매도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행동을 한다. 또한 대중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통해 정권 전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술이다.

북한의 제 4세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북한의 전력증강을 통하여 쉽게 분석할 수 있다. 결국 한·미 연합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전력 위주의 증강이 불가피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인 대량살상무기와 특수전부대, 사이버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 개발로 인해 현재 핵 무기를 8~12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발표하였으며, 화생무기는 2,500~5,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은 1,000여발을 보유하고 있고 장사정포는 700여문을 북방한계선 인근에 이미 배치하고 있다. 특수전부대는 중·창설하여 배합전 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2~3개 추가 창설하고 전방사단에는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였으며 과거 정보교도지도국을 폭풍군단으로 개편하면서 약 20만명의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배합전 수행능력을 집중 향상시키기 위해 공수강하훈련 및 타격훈련, 야간·산악·시가전 훈련을 강화하며 유사시 땅굴 등을 이용하여 아 후방지역을 침투 후 동시다발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배합전 수행을 시도할 것이다. 특수전부대의 규모 뿐 아니라 수단 면에서도 잠수함을 76척을 보유하고 있고 스텔스 고속정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능력을 보강하고 있다. 사이버전 수행능력 면에서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18) 통일전선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적을 타도하는데 있어서 좌파세력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대표적인 조직·선전공작이다. 차주완. (2010).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변화연구』. 경남대학교.

있다. 김정일의 지시¹⁹⁾에 따라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 제 121연락소를 창설하고 '86년부터 인민무력부 직할 미림대학에서 사이버전 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출신성분, 사상, 당에 대한 충성심을 모두 갖춘 우수 인재로서 매년 100여명을 배출하는데 컴퓨터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사이버전 부대 군관으로 선발이 된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에서는 CIA와 대등한 사이버전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²⁰⁾ 이에 더하여 NCW 개념을 지향하면서 현대전 능력도 보강하고 있는데 김정일의 지시('05. 10월)에 따라 미사일을 중점으로 첨단무기 전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광케이블 및 무선데이터 통신체계 등 DATA 통신망 구축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전쟁지속능력 향상을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 전시군수품 생산공장을 300여개 보유하면서 자급능력을 구비하였고 생산된 전쟁물자를 갱도화된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교육훈련에서는 야간, 산악, 도시 이용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군종과 병종에 관계없이 경보병화 훈련을 지속 강조하고 있고 남한의 도시화를 인식하고 타격 및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시가지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제 4세대 전쟁능력을 통해 위협을 평가할 수 있는데, 북한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간첩을 남파하고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배합전을 전략전술로 채택하고 제대별로 경보병부대와 저격부대를 확대 편성하여 아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더불어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면서 평시부터 지속 시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킴과 동시에 전시를 대비한 훈련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4세대 전쟁에 대한 개념과 특징, 그리고 전쟁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세대 전쟁의 특징은 전쟁의 주체, 전장의 범위, 전쟁의 수단, 병력의 운용, 전쟁의 목표 측면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북한의 제 4세대 전

19)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특별 공간, 항일 유격전 당시 가장 큰 전과를 올렸던 소중한 무기인 총과 같다”

20) 미 국방부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나라, '04년 7월 국회 및 국가기관 10개소 컴퓨터를 211대 해킹하였으며 최근 미국과 한국의 주요기관에 대한 Ddos 공격 배후로 지목되고 있고 '08년 5월에는 GPS를 이용하여 첨단 미사일이나 정밀유도폭탄을 교란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이란 및 시리아로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쟁 능력과 위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래와 같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4> 제 4세대 전쟁 특징 분석

구 분	특 징
전쟁의 주체	· 북한 정권 및 한국 내 북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직과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망라
전장의 범위	· 한반도 전체 및 사이버공간
전쟁의 수단	· 재래식 전력 /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활용한 대남 비난 방송 및 도발의지 천명 · 인터넷, 사이버전, 전자전 등
병력의 운용	· 정찰총국, 특수전부대, 사이버부대, 고정간첩 등
전쟁의 목표	· 남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혼란 야기 및 전쟁수행의지를 파괴하여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출처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1세기 제4세대 전쟁』, p .107.

즉 북한의 제 4세대 전쟁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전술은 평시부터 사용 가능한 전술과 전시에 주로 사용 가능한 전술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평시부터 사용 가능한 전술로는 국내 좌익 세력과 동조자를 정부기관에 침투시켜 정부의 정책추진을 방해하고 이기주의를 추구함으로써 통합된 전력발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주요인사 및 군 부대 주요 직위자의 가족 및 친인척을 납치 후에 해당 인사를 포섭함으로써 주요 정책 및 업무를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언론·종교·정치 분야에서 좌익세력을 통해 동조세력을 조성하고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반정부 시위를 확산하고 남남 갈등을 획책하려고 할 것이며 고정간첩 및 적 동조세력의 선전선동 등과 연계하여 도심 내 은거하면서 급조폭발물(IED)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및 군사주요시설, 도시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할 것이다.²¹⁾ 마지막

으로 아직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최대 강점인 생화학무기를 활용하여 상수원에 독극물을 살포하거나 전염병을 유포시키는 등의 테러를 감행할 것이고 GPS 교란 및 사이버 테러를 통하여 국가 기간망 및 군 지휘통제망을 마비시키고 SCADA 시설을 통제 및 교란을 시도할 것이다.

전시에 주로 사용 가능한 전술로는 먼저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대비 억제 전략을 구사하면서 유리한 협상의 위치에 서려고 할 것이며, 개전 초기부터 땅굴을 이용한 특수전부대의 대규모 침투 및 주요 시설 점거를 시도할 것이다. 더불어 인터넷과 전단 등을 통한 여론 조작과 정권퇴진 압박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친북정권을 수립하고 수도권 확보를 시도할 것이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속성 화학탄이나 생물학 공격으로 아 동원병력과 물자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수도권에 장사정포 및 미사일을 집중 포격함으로 전쟁수행의지를 조기에 파괴시키려고 할 것이다. 또한 6·25전쟁시와 같이 경보병부대는 포로로 위장하여 포로수용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후방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핵·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미 본토 위협으로 미군 철수 요구 및 미국 내 반전여론을 조장하여 정책결정자의 전쟁수행의지를 파괴시킬 것이다. 이후 국제사회와 정치적 협상²²⁾으로 남한 내 친북정권을 수립하고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북한은 제 4세대 전쟁을 구현할 것이다.

21) 이찬규.(2015. 『북한의 제 4세대전쟁 전개양상과 한군군 대비방향 연구』 . p.30.

22) 수십만 명의 특수부대를 항공육전대나 쾌속정으로 투입, 미사일기지 및 비행장 등 주요시설을 타격하고 기동전을 통해 3~5일 내 남한 전역을 장악하고 미사일 및 방사포 등 화력을 통해 단시간 내 서울 등 전략지대 타격 및 파괴 후 추가적인 미사일로 위협하여 협상전략으로 전환한다. 황장엽 비서 증원

제 3 장 도시지역에서의 북한군 위협

제 1 절 도시지역에서 북한군 위협 증대

이라크전은 미·영 연합군의 바그다드 공습으로부터 전쟁이 개시되었고 주요작전이 바스라, 나시리야, 나자프 등과 같은 도시에 대한 공격작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수도 바그다드와 후세인 고향 티그리트를 함락시킴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와 같이 현대전에서 도시는 전략적·작전적으로 중요한 요소로서 새로운 전장환경으로 대두되었다.²³⁾

한반도 전장환경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발달한 많은 중·소 도시가 한반도 전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도시들은 군사작전 수행의 장애물로서 때로는 전략적·작전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²⁴⁾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기관이나 야전부대에서 북한군이 도시를 공격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공격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발간된 교육참고 등 북한군 전술 관련 자료에 수록된 도시 공격전술에 대한 내용은 단편적이고 개괄적이어서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제한이 되고 있다. 이제 도시는 단순히 후방지역에서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요소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북한군의 위협이 특수전부대에 의해서 교란을 하고 지휘통제를 마비시키며 사회를 혼란시키는 목적으로만 도시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 자체가 북한군 주력의 목표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대응책이나 북괴군에 대한 판단은 매우 미흡한 현실이 되고 있다.

한반도 전장지역의 도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 인구의 89%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등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은 종적으로 발달된 도로를 따라 광역화가 발달되고 있다. 김포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축선과 의정부에서 구리로 이어지는 축선, 그리고 서울로의 최단거리인 문산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축선이 그 예로 들 수 있

23) 이광우, “북한군 전술 주요쟁점 교리 연구”

24) 양봉희, (2004). “한반도에서의 미래전 양상판단 및 대비방향”, 『군사평론 368호』, p.6.

다. 즉 전방지역의 거점 및 주요 도로 주변에서 도시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기능 도시들이 발달되고 있으며 도시의 국제화 및 광역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은 광역화된 거대도시로서 계속 확장되어 도시지역에의 도심지와 도시외곽지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서울과 연계하여 대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개발지가 없어지고 도시가 연결되는 형태가 되고 있다.

북한군이 공격작전을 수행시에는 가급적 도시를 최소한의 부대로 견제하면서 최대한 우회를 시도하고 우회가 불가능시에는 시가지내의 도로망을 이용하여 고속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도시지역작전의 양상이 전략적·작전적 목표 및 중심을 직접 공격하는 등의 장차작전 양상을 고려해볼 때 지금까지 전역차원의 일부로서 도시지역작전보다는 도시지역작전 자체가 주요 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5)

북한군의 군사전략은 배합전략, 대량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으로 큰 틀은 변화되지 않고 있지만 그 세부 수행방법은 전장상황 변화와 현재전의 전례연구를 통해 지속 변화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확인된 최근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지형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한 선제 기습공격 전략,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공황을 조성하여 수도권 장악 전략, 미군 증원 이전에 수도권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수단을 이용한 성동격서식 도발 전략이다. 26) 북한군의 전략과 전술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도시는 우회하고 차후 포위하여 섬멸하는 개념이 아니라 초기부터 점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변화된 개념이다.

먼저 한반도 지형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한 선제 기습공격 전략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지역은 약 90%가 도시화가 되었으며 그에 더하여 도시는 광역화가 되어 대도시화를 이룸에 따라 종적으로 발달된 도로를 따라 신속한 중심기동을 위해 도시를 우회하는 것이 제한되는 한반도 전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

25) 야전교범 3-23 (2006) 「도시지역작전」, pp.1~4.

26) 국방정보본부. (2011). 『북한전략정보자료집』, pp.99~102.

작전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집단군 및 전선사의 주력인 기갑 및 기계화부대는 도시를 우회하여 중심진출하고 그를 후속하는 2세대 보병사단 또는 교도사단에 의하여 도시지역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북한군의 주력이 도시지역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전쟁역량을 고려할 때 기습공격이 아니면 한·미 연합전력에 의하여 정후가 감시되고 대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전력과 교리에 의존한 전쟁이 아닌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는 제 4세대 전쟁의 개념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한 효과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적(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도시 지역을 직접 공격하거나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심리적 마비와 공포를 주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지역은 북한군의 주요 작전이 될 것이고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공황을 조성하여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략이다. 과거의 전쟁은 접촉 및 선형작전이었지만 미래전은 비접촉 및 비선형작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북한군도 인식하고 있다. 현재 접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지역에서만 주 전장이 이루어지고 후방지역에는 일부 역량만 투입되어 상황을 조성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과거의 개념보다 후방지역에서의 북한군 역량이 대량으로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전방보다 후방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한국군의 약점을 활용하여 공격할 것이다. 남한지역이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광역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방호 요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작전 요소는 제한되어 현재로써는 북한군이 개전 초부터 후방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시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지역에서의 공황은 커질 것이며 북한군의 주도권 장악은 용이해져 전방에서의 작전수행도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즉 전방지역에서의 대부대와 후방지역에서의 소부대의 배합전 개념이 다소 변형된 모습이 되어 전·후방이 동시 공격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셋째, 미군 증원 이전에 수도권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이다. 북한군의 역량으로는 한·미 연합전력에 열세하기 때문에 미군 증원 이전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중동전 이후 북한군은 기갑 및 기

계화 부대를 전력화하여 한반도 후방까지 신속한 중심기동을 하겠다는 목표였지만 현재의 피·아 상황을 고려 시에는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국지전이나 제한전쟁을 통하여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여 협상을 통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한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정치적·전략적 목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서울과 한강 이북·남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작전을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넷째,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수단을 이용한 성동격서식 도발 전략이다.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수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습과 기만이 중요하다. 즉 적이 공격할 것이라는 징후를 판단하기 어렵게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징후판단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이나 공격 준비의 모습이 아닌 소규모 분권화 작전수행이 효과적일 것이며, 피·아의 혼재를 통하여 적의 적대행동 뿐 아니라 적 자체를 구분하기 어렵게 할 수 있겠다. 도시지역에서는 작전 자체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기갑부대나 중장비로 무장화된 보병보다는 경량화된 보병이나 특수전부대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전수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민간요소와 작전요소로 인해 피아 구분이 모호해지고 통제가 어려워 북한군이 이러한 군사전략을 달성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곳이 도시지역이 될 것이다.

이라크전과 최근 시리아 내전 등을 통해서도 작전이 도시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도시지역 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에서 바그다드 장악작전은 과거의 개념과 다른 도시지역 작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도시지역작전에 대한 가능성과 신 전술이 도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²⁷⁾

제 2 절 북한군 특수전부대 도시지역작전에서 운용 가능성

북한군은 배합전을 그들의 전략 중 하나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특수전

27) 신기철. (2009). 『한반도 미래전 양상판단과 대비방향 연구(5대 우위 중심)』. 군사평론 제 410호, p.24.

부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보병부대의 증편과 야간·산악행군 훈련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추가 창설하며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는 등 약 20만명의 특수전 부대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5> 특수전부대 변천 과정

구 분	부 대	내 용
1948년	강동 정치학원	· 특수요원 양성(한국전쟁시 남파) · 1950년 3월간 10차례 침투(2,300여명) · 1950년 6월 폐쇄
1957년 6월	집단군 도보정찰소	· 군사 정찰 및 공작원 안내 · 1개 도보정찰소 2,900여명으로 편성
1965~66년	집단군 경보병연대	· 최초 경보병부대 · 사단에서 1개 연대 차출 운용 · 중화기 모두 반납(경화기 무장)
1969년	특수 8군단	· 제124군부대 및 제 17정찰여단을 모체로 창설(특수부대 통합)
1995년	항공육전여단 경보병여단 해상저격여단 저격여단	· 5개 항공육전여단 · 11개 경보병여단 · 2개 해상저격여단 · 5개 저격여단으로 증·개편 · 5개 정찰대대, 51개 경보병대대
2009년 이후	경보병사단 경보병/ 저격여단 경보병연대 경보병대대 정찰대대 포종심정찰대대	· 11(폭풍)군단으로 명칭 변경 · 7개 경보병사단 · 25개 여단 · 11개 경보병연대 · 45개 경보병대대 · 19개 정찰대대 · 11개 포종심정찰대대

* 출처 : 육군대학. (2010). 『군사평론-북한군 전술교리의 과학적 분석』, p.212.

북한은 김일성의 군사사상을 통하여 경보병부대 등 특수전부대를 발전시켜 왔다. 김일성의 중공군 및 구소련 근무 경험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²⁸⁾ 1930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여 동북항일연군 지대장을 하면서 보천보 전투(1937년) 등 다수의 소부대전투 경험을 통해 유격전 교리를 체득하였다. 1941년부터는 구소련 25군 88저격여단에서 중대장을 시작으로 구소련군 소좌로 임복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근무경험이 북한군 군사전략 및 군사교리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6·25전쟁의 경험을 통해 소부대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는데, 개전 초기 대전전투간 1개 연대(4사단 18연대)의 작전적 우회를 통한 대전 포위작전을 성공하는 등 적지에서의 침투 및 우회부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경보병여단 및 경보병대대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대전전투에서의 작전적 우회²⁹⁾를 통한 포위 성공은 북한에게는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을 배합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후 '60~'70년대 경보병부대 전력 증강에 집중하였으며 침투 수단을 위해 침투용 땅굴을 구축하였다. 또한 북한은 '90년대 걸프전 이후 소부대전 및 유격전의 중요성을 제고하였다. 걸프전 이후 「만전쟁 교훈 및 대책」을 발간하여 교육하였고 대부대전과 소부대전 배합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였다. 걸프전을 통해 북한은 아군이 공중 우세권을 확보한 상태로 공중 우세력에 의한 전법을 사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부대 간 공간지 및 중간지가 다수 형성되며 상대적으로 부대 및 시설물에 대한 경계 대책이 미흡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특수전부대의 역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전술변화에 따른 특수전부대의 증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의 1세대 기본역량 집중 지시를 하달한 바 있으며, 기갑 및 기계화군단이 사단급으로 개편이 되고 집단군이 증편되었다. 이를 통해 특수전 및 포병, 기계화부대의 배합전에 의한 속전속결 전술 구사가 더 가능해 지고 있는 것이다.

28) 김일성은 1930년대 중국 공산당에서 동북항일연군지대장 경험과 6·25전쟁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구사한 중공군의 운동전 개념을 경험하면서 중공군의 유격전 사상과 운동전 개념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희순·최호성·최상근, (2010). 『북한군 전술교리의 과학적 분석(Ⅱ)』, 군사평론 407호, p.210.

29) 집단군사령관은 전선타격과 배합하여 기계화 연합부대들으로써 대담한 작전적 우회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소부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적을 포위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보사령부, (2000). 『조선인민군 야전규정(군단·사단)』, p.29.

북한군 특수전부대는 개전 초 비행장, 군 C4I 시설 등 군사시설과 병참선을 우선 타격할 것이며 이후에는 공공 및 산업시설, 도시기능유지 핵심시설 등을 타격하고 작전이 장기화되어 탄약 및 식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지 보급 조달 목적으로 예비군 탄약고, 보급창고, 폭약저장시설, 민가 등을 습격하며 완전한 습격 계획수립을 위해 충분한 사전 정찰을 실시할 것이다.

먼저 공중침투부대는 비행장 및 방공미사일 기지 등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것이다. AN-2기를 이용하여 비행장에 중대단위로 두상낙하하여 항공기, 관제소, 지휘소, 정비 및 유류고를 부대단위로 타격 후 외곽지역으로 신속하게 이탈 및 재편성할 것이다. 나이키 및 호크미사일기지, 통신중계소 타격시에는 목표 인접 10~20km 지점에 낙하하여 공격준비 후 소대단위로 강습침투, 미사일 발사대·통신중계시설 등 핵심구조물을 타격 후 외곽으로 신속하게 이탈하여 집결지로 이동할 것이다. 지휘통제시설, 지휘관실, 유류고 등을 타격시에는 침투준비 단계에서 유·무선 통신수단을 파괴하여 증원부대에 대한 상황 전파를 차단 후 소대단위로 신속히 타격하고 이탈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또한 아군의 후방지역작전에서의 중요한 병참선을 타격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철교는 복구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표적 또는 우회로가 제한된 표적을 조 또는 소대 단위로 폭파하며 가용폭약 범위 내에서 주로 경간을 파괴하되 통상 철교 양쪽에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하며 철도 파괴시 경계가 소홀한 계곡 또는 절개지, 성토지에 은밀침투 후 레일측면 또는 하단에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할 것이다.

도시지역에서는 공공 / 산업시설 및 중요시설 타격이 중심이 될 것이다. 교도소·댐·변전소·통신 및 방송시설, 특히 전기 통신시설이 집중된 지하공동구 타격이 예상되며 농·어촌 지역에서 탄약보급을 위해 읍·면 지역의 경계가 소홀한 경찰서 및 예비군 무기고·탄약고 등을 습격하여 현지 조달하고 산간 취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공작을 통해 동조자 및 불순세력을 포섭하여 식량 및 병력을 보충할 것이다.

북한군은 지속적으로 경보병사단 증·창설 등 특수전부대를 증강시키면서 대남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³⁰⁾ 이러한 특수전부대의 증강은 국지도발 위협

30) 합참정보본부. (2009). 『북한군 경보병부대 위협 분석』, pp.4~5.

뿐만 아니라 전면전의 수행에 있어서도 기습공격과 미군의 증원 이전에 속전 속결로 전쟁을 종결하며 배합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전력으로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전면전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의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수부대 요원 개인이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지참하고 전투지역에 침투, 전투상황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한반도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야간전·산악전·시가전 훈련을 강화하는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전을 학습하여 유사시 땅굴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배합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특수 8군단을 해체하고 7개의 경보병사단을 창설³¹⁾하며 갯벌에서도 고속기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척, 고속상륙정 90여척 등 260여 척의 특수부대 병력 수송 수단을 가지고 있다. 북한군 경보병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라는 면에서 먼저 주요 위협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기습남침시 전쟁 이전 투입될 위협요소이며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그 위협이 작용할 것이다.³²⁾

북한군의 특수전부대는 우리에게 다양한 위협이 될 수 있으나 도시지역에서 활용시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작전요소로 인해 아군이 방어력 발휘가 제한되고 피·아의 혼재로 인해 적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에 상당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지역 자체가 중요한 목표 또는 전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북한군의 입장에서 우회기 아닌 반드시 확보 또는 점령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복귀군 공격양상이 지금과는 상이할 것이고 이러한 방향에는 북한군이 가장 자랑하는 비대칭전력 중에 특수전부대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의 북한군 특수전부대는 사전에 침투하여 주요시설을 점거하거나 파괴하고, 도시 내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정규전부대와 배합전을 통해 도시지역을 포위할 목적으로 진입로 및 퇴로를 차단하고 도시 외곽의 주요 감제고지를 점령하는 임무도 특수전부대

31) 정은영. (2014). 『김정은 체제 북한군 전략전술』. 군사평론 제 429호, p.9.

32) 이정환. (2010). 『북한 특수전부대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의 임무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도시지역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보병 전술로 극복이 제한되는 요소가 많으며 밀집된 건물군 단위별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소요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분권화 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건물 단위의 전투 또는 습격 등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가 더 적합할 것이기 때문에 경량화된 보병 또는 특수전부대의 역할이 도시지역에서 더 대두되는 것이 타당하겠다.

제 3 절 도시지역의 취약성 및 작전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은 공자와 방자 모두에게 어려운 작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 입장에서든 일반적으로 우회를 기본으로 하였던 것이고 방자의 입장에서든 공자의 의도를 알고 상대적으로 배비를 약하게 하며 도시지역의 장애물 효과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의 작전이 불가피한 추세에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도시지역에서의 작전이 중요성을 띄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군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의 취약성과 피·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도시지역의 특징은 복잡한 인공지형지물이 산재해 있고, 대규모 비전투원이 상존하며, 다양한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시지역에는 고층건물과 교량 및 터널, 지하시설로 인해 개활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공자에게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방자에게는 방호시설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대규모 비전투원은 지역주민, 피난민, 행정기관 근무요원, 언론인, 부상자 등이 상존하여 군사작전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인도주의적 책임소요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반시설은 전기·통신·가스·급수·지하철·공동구·지하수로 도시기능유지 및 군사작전 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지역 특징에 따른 도시지역작전의 특징을 도출해 볼 수 있겠다. 먼저 다차원 공간에서의 전투수행을 한다는 점이다. 지하라는 추가적인 전투공간이 존재하며 건물 내·외부에서 교전이 발생할 수 있고 도시지역 내

부는 기동이 곤란하고 사격이 제한되며 무선통신의 운용이 제한되어 지휘통제의 곤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건물 구획 단위의 소부대 분권화 전투수행을 한다는 점이다. 도시지역의 특성상 고층 건물 등 다양한 인공지형지물로 인해 물리적으로 전장이 구분이 되어 대부대의 전술적·작전적 전투수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부대 단위의 작전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소부대 작전은 지휘통제의 곤란 측면에서 분권화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게 된다. 셋째, 비전투원 분리 및 통제의 중요성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주민의 의식성향에 따라 피·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중요하다. 넷째, 기반시설 통제 및 효과적 활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기반시설은 도시기능유지 및 군사작전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호대책 뿐 아니라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작전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도시를 교란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에서의 작전보다 제한적인 조건하에서의 수행을 한다는 점이다.³³⁾

이러한 도시지역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공자인 북한군 입장에서는 건물지역으로 인해 기동이 제한되고 공격이 분산되며 지휘통제와 관측이 제한되고 화력효과가 감소되는 약점이 있으나 지하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침투 기동에 용이하고 방자의 화력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활용하여 공격력을 발휘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겠다. 반면에 방자 입장에서는 은폐 및 엄폐와 양호한 방호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인공구조물 등과 연계한 장애물 운용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인공지형지물에 의한 관측과 사계가 제한되고 화재 등 간접 피해에 취약하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등 방호요소가 산재한 불리점이 있다. 무엇보다 대규모 비전투원들에 의한 군사작전 방해 요소로 인해 효과적인 군사작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겠다.

또한 도시지역은 인구밀집으로 인해 대량살상무기에 취약하며 사회기반시설에 의존 정도가 커서 전기·급수·통신 등을 차단시 혼란이 증대되고 사회기능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현상으로 유언비어 확산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다.

33) 육군본부, (2006). 야교 3-23 『도시지역작전』, pp.16~19.

제 4 절 한반도 전장상황에서 도시지역공격의 타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도시화와 광역화의 가속화 및 북한의 전략·전술의 변화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군이 도시지역을 주요작전으로 하여 공격하는 양상이 더 타당성을 얻고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북한의 군사위협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북한군은 수도권을 조기에 탈취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여 수도권을 고립시키고 혼란을 조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본적으로 가급적 도시를 최소한의 부대로 견제하면서 최대한 우회를 시도하겠지만 우회 불가시에는 시가지 내의 도로망을 이용하여 고속 돌파를 시도할 것이고 수도 서울 등 전략도시의 조기 점령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더불어 특수전부대를 운용하여 도시 내로 은밀 침투시켜 교란 및 타격작전을 수행하고 장사정포 및 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도시 내 점표적에 대해 선별적 공격을 하는 등 전 중심에서의 동시 전투를 강요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군의 위협에 따른 도시지역작전의 양상을 분석해 보면 먼저 전략적·작전적 목표 및 중심을 직접 공격하는 장차전 양상을 고려 시 도시지역작전 자체가 작전의 주요 국면이 될 것이다. 둘째, 공간면에서 다차원 전투공간에서 전투가 전개되며 적과 우군, 비전투원이 혼재되고 동일 건물 내에서 피·아가 혼재되어 전장구분이 곤란한 도시지역의 취약성을 활용하여 특수전부대 또는 경량화된 보병 위주로 도시지역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면에서 전 세대 동시전투와 주·야간 연속전투가 발생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소규모 분권화 작전이 중심이 되는 만큼 작전은 시종이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북한군은 도시지역작전에서도 대부대와 소부대를 통한 전략적·작전적·전술적 배합전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경보병사단 등 경량화된 보병에 의한 도시외곽지역을 차단 및 공중강습작전을 통한 도심지 내 중요시설 확보 등의 도시공격작전을 시도할 것이며 특히 도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대한 사전 선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4 장 북한군 도시지역작전 양상

제 1 절 특수전부대 임무 및 전투수행양상 차이점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 양상을 연구하면서 제 4세대 전쟁을 적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제 4세대 전쟁이라는 전쟁수행 양상을 위해서 북한은 비대칭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은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통한 대남 및 대미 위협이 될 것이다.³⁴⁾ 더불어 국지전 또는 제한전쟁을 통해 정치적·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수전부대의 역할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전부대는 몇 년 전만에 해도 약 12만 명으로 추산되다가 최근에 경보병사단 창설 등을 기점으로 약 2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보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전부대는 일반적으로 아 후방지역에서 습격 및 타격, 그리고 교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북한군의 다양한 제대의 특수전부대들은 상이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방군단의 경보병사단은 군단 예하의 저격여단 및 경보병여단, 그리고 전략적 배합전을 수행하는 폭풍군단이나 정찰총국의 정찰대대와는 상이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특수전부대는 임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투수행양상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고 도시지역작전에서의 특수전부대의 역할이나 양상을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북한군의 특수전부대는 총참모부 예하에 다수의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7개 사단, 25개 여단, 19개 정찰대로 약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먼저 전략적 배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폭풍군단 예하 4개 경보병여단, 3개 항공육전여단, 3개 저격여단과 해군사령부 예하의 2개 해상저격여단, 공군사령부 예하의 2개 공군저격여단, 그리고 정찰총국 예하의 7개 정찰대대이다. 작전적 배합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전방군단 예하의 7개 경보병사단, 군단별 저격여단과 경보병여단, 정찰대대, 그리고 기갑사단의 경보병여

34) 이윤규. 전게서. p.30.

단, 기계화사단 및 군단의 경보병여단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술적 배합 임무는 보병사단 예하의 경보병연대가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전부대의 전투수행방법은 다양한 침투수단을 활용하여 땅굴을 포함한 지상과, 공중, 해상을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전방과 후방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다. 먼저 전략적 배합임무를 수행하는 폭풍군단의 경보병여단과 항공육전여단, 공군육전여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폭풍군단 예하 경보병여단은 여단별 아 도 단위 책임지역이 할당이 되어 있으며 아 후방지역에서 군사시설 및 산업기지를 습격 및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 및 납치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침투는 땅굴이나 산악, 고속침투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침투시기는 D ~ D+10일, 도착은 D+5 ~ 15일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보병여단은 태백산맥 등 발달된 종격실 산악능선과 계곡을 이용하여 수 개의 침투로를 선정 후 은밀성을 보장받은 가운데 침투할 것이다.

폭풍군단 예하 저격여단과 해군사령부의 해상저격여단은 D ~ D+1일 이후 침투할 것이며 침투수단은 잠수함(정), 공작모선,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이 될 것이다. 전술적 상륙침투가 제한되는 만큼 침투 해안에 강습 분산 침투하여 항만을 습격하거나 함정을 폭파하여 미 증원 차단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지상침투로 전환 후에는 아 후방지역을 교란하는 임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것이다.

폭풍군단 예하 항공육전여단과 공군사령부 공군저격여단은 D ~ D+3일에 MI-2, MI-4, MI-8, AN-2기 등을 이용하여 침투할 것이며 대규모 미사일 및 공중공격 후에 침투하며 비행장 및 관제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군단의 경보병여단은 전방군단이 전시 집단군으로 승격됨에 따라 집단군 후방지역에서 주요 대상물에 대한 타격 임무를 수행하며 작전적 배합작전을 수행한다. 타격 대상물은 지휘소, 통신시설, 미사일기지, 중계소, 공중기동부대, 병참선 등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한다. 주운용지역은 FEBA “B”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일부부대는 헬기육전대 착륙지점 등 중요지형을 선점할 것이고 미투입된 1/3역량은 상황을 고려하여 FEBA “C” 이후 중심지역 시가전에 투

입하여 통신·전력·방송시설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조성할 것이다. 임무수행은 기본적으로 타격대³⁵⁾ 단위로 운용이 되나 임무를 고려하여 대대, 소대, 분대 단위로도 운용이 예상된다.

전방군단의 저격여단은 6개의 저격대대로 편성되어 있고, 주요 장비는 기관총, RPG-7, 60mm 박격포 등이 있으며 경보병여단과 상이하게 SA-7은 미보유하고 있다. 임무는 집단군의 작전적 배합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군사·산업시설을 타격하고 요인을 납치 및 암살하여 군사정찰과 심리전, 정치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 전방군단 후방지역에서 야전군 후방지역에서 운용이 되며 FEBA “C” 선 이후 중심지역에 집중 운용될 것이다. 일부 부대는 전선증원 및 병참선 차단 임무수행을 병행해서 실시하며 임무수행은 기본적으로 소대 단위로 운용이 되나 임무를 고려하여 중대 ~ 조 단위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07년 경 창설된 전방군단 예하의 경보병사단은 공격작전시에는 집단군의 포위소멸작전을 위한 퇴로차단 및 증원거부를 위한 우회대 임무와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중심성과확대작전시 중심기동여건 보장 임무를 수행한다. 방어작전시에는 전·후방 동시전투를 위한 습격대 임무와 집단군의 반타격시 퇴로차단 및 포위소멸, 증원거부를 위한 우회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³⁶⁾ 그러나 경보병사단의 전술적 운용 관련한 적서가 입수된 바 없어 과거 「집단군(군단)·사(여)단」 교범과 「특수전부대」 교리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교리는 공격작전시 기본역량이 중심기동여건 보장부대 임무를 수행하고 일부역량이 우회대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12년에 북한군 참고교리 22-39-1-1 「경보병사단·연대전술」 발간되기 이전에 경보병사단이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하던 습격대 임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일부 야전부대와 학교기관에서 적용이 상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역량이 중심기동여건 보장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현재 운수중대 수송가능 인원을 고려시 임무가 제한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경보병사단이 창설되고 사단 경보병대대가 연대로 증편되

35) 1개 작전조 지휘통제 하에 편조된 3개 대대를 통칭하여 ‘타격대’로 부르며 유사시 임시 편성된 집단이다.

36) 북한군 참고교리 22-39-1-1 .(2012). 『경보병사단·연대 전술』

면서 특수전부대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부대의 전술적 운용 등 전투수행방법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여 적서가 입수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의 교리와 귀순자 진술, 경보병부대 훈련양상 분석 등을 통해 참고교리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해하였던 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현재 편제와 능력으로는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점도 있으며 확실한 적서가 입수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참고교리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경보병사단의 임무나 운용에 대한 것을 단정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특히 경보병사단이 기존의 경보병부대와 명칭에서 유사하다고 하여 경보병여단이나 저격여단과 같은 전통적인 특수전부대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경보병사단과 경보병여단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부대 라고 보는 것보다는 경보병사단 자체의 능력과 훈련 양상 등을 통해 그들의 임무를 재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보병여단은 점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시설을 타격하는 위주로 운용되며 최초계획에 반영되어 작전개시 이전에 투입된다. 또한 경보병여단 자체 분권화 위주 작전 수행을 하고 운용제대는 분대 ~ 대대 단위로 운용이 된다. 반면에 경보병사단은 중요지형을 선점 또는 확보 위주로 운용이 되며 작전진행간 기동부대 진출을 고려하여 투입이 된다. 운용 제대 면에서도 대대 ~ 타격대 단위로 운용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표-6> 경보병여단과 경보병사단의 차이

경보병여단	경보병사단
· 중요시설(점표적) 타격 위주	· 중요지형 선점(확보) 위주 운용
· 작전개시 이전 투입(최초 계획 반영) * 경보병여단 자체 분권화 위주 작전	· 작전진행간 기동부대 진출 고려 투입 * 정면타격과 연계된 배후습격, 교란
· 분대 ~ 대대 단위 운용	· 대대 ~ 타격대 단위 운용

* 출처 : 북한군 참고교리 22-39-1-1 『경보병사단·연대 전술』, p.87

제 2 절 경보병사단 전투수행양상 분석

경보병사단의 전투수행방법을 구체화시 관련된 적서가 입수되며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한되는 바 '07년 이후 경보병사단 창설 이후 근무하고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귀순자의 진술과 최근 경보병사단의 훈련 양상을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한 전투서열 확인을 통한 구성과 능력을 통해 가능한 임무 및 운용에 대하여 추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경보병사단은 전방군단 별 2~3개 편성되어 있다. 서부축선의 0군단과 동부축선의 0군단에는 2개 경보병사단이, 중부축선의 0군단에는 3개 경보병사단이 있지만 최근 중부축선의 0군단도 다른 군단과 같이 2개 경보병사단을 보유한 것으로 재시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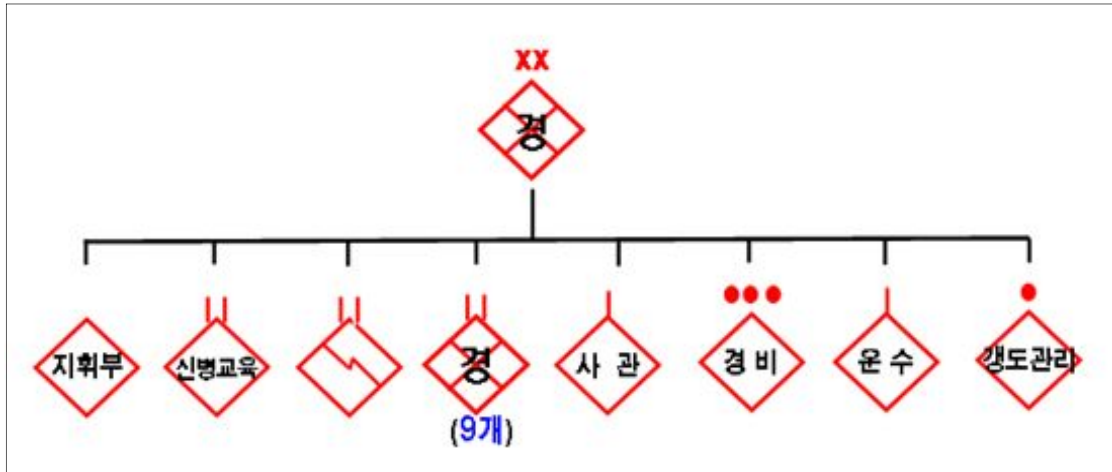
경보병사단은 전방군단 예하 제 2제대 정규 보병사단에 편제되어 있던 포병 및 탱크 등 중장비를 교도부대들에게 전환하고 경량화된 보병사단으로 재창설된 부대이다.³⁷⁾ 따라서 북한군에 의한 명칭에 의해 경보병사단을 기존의 경보병부대(경보병여단, 경보병대대)와 같이 특수전부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경량화된 보병의 형태와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경보병사단의 편성을 고려시 경보병여단과 상이하게 작전조³⁸⁾가 구성이 되는 특징이 있다.³⁹⁾ 작전조는 사실상 3개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운용이 된다. 즉 경보병여단의 운용 제대인 분대 ~ 대대급과는 상이하게 대대 ~ 타격대 단위로 운용이 되는 것을 고려 시 전술적인 임무가 부여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보병사단은 경보병여단 등과는 상이한 전투수행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운용 목적과 수단도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37) (2012). 북한군 참고교리 22-39-1-1 『경보병사단·연대 전술』, pp.12~13.

38) 소부대 작전조 : 협동동작시 소부대들의 전투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참모 성원. 『북한군 군단-사단 공격·방어』

39) 이희순, 최호성, 최상곤. (2010). 『북한군 전술교리의 과학적 분석(Ⅱ)』, 군사평론 제 407호, p.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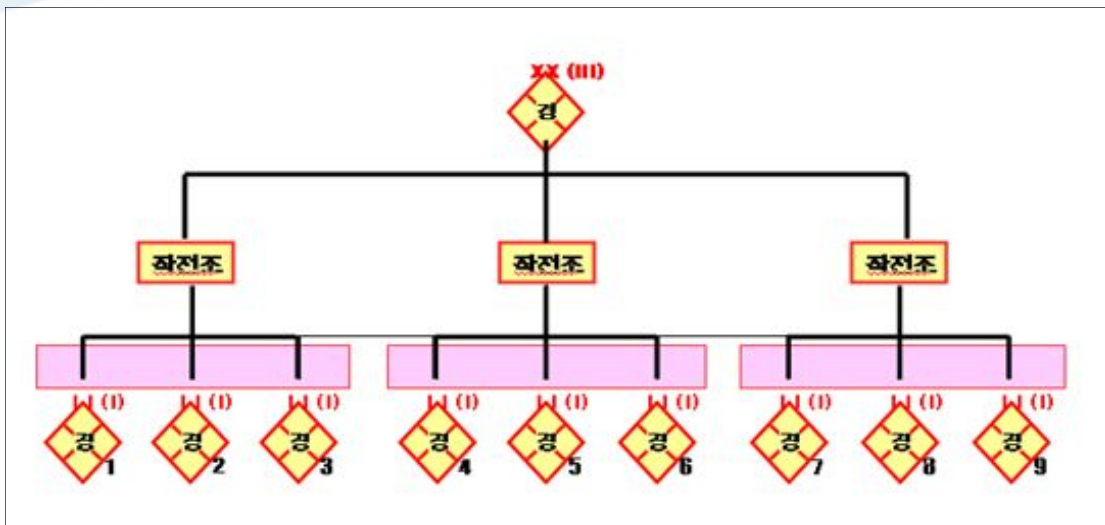
<그림-1> 경보병사단 편성



* 출처 : 『북한군 특수전부대 운용 및 대비방향』 . 육군대학, p.9.

또한 경보병사단이 기존의 정규 보병사단에 장비를 경량화하여 명칭을 경보병사단으로 부여한 것이다. 부대의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기존의 부대의 역량을 넘어선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특수전부대는 다년간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그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일반 보병부대와는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 지수를 비교할 때나 임무를 부여할 경우에도 상이하게 적용하게 된다.

<그림-2> 경보병사단 작전조 운용



* 출처 : 북한군 참고교리 22-39-1-1 『정보병사단·연대 전술』, p.121.

그러나 기존 보병부대가 정보병부대가 되었다고 당장 특수전부대와 같은 역량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훈련의 방법도 상이하고 병력의 역량의 차이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병사단은 물론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특수전부대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고 제한된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하게 육성할 수는 있겠지만 엄연히 운용이나 전투수행방법에서는 상이할 것이다. 북한군의 전략·전술의 변화에 따라 야간작전과 산악작전, 그리고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부대 분권화된 작전의 중요성에 따라 경량화된 보병의 중요성에 의하여 정보병사단이 운용될 가능성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제 3 절 도시지역작전에서의 정보병사단 운용 방안

정보병사단은 현재의 교리를 적용할 때 기본역량이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중심성과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중심기동 여건보장 임무를 수행하고 일부 역량은 집단군의 포위소멸작전을 위한 우회대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⁴⁰⁾ 그러나 정보병사단의 편성과 역량, 훈련 양상을 고려할 때 야간작전과, 산악작전, 도시지역작전 등에 경량화된 보병의 모습으로 전투수행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동부축선에서는 정보병사단이 산악지역작전이 중심이 되어 산악지역 작전의 특성인 소부대 분권화 작전에 효과적으로 운용이 될 것이며, 서부축선과 중부축선에서는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중심기동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전장환경이 도시화되고 종적으로 발달된 도로상에 대부분 대도시가 발달되어 도시지역작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병사단이 도시외곽의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작전에서 경량화된 보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병사단을 이용하여 도시지역 내 핵심시설 및 외곽 감제고지를 사전 점령하여 도시의 고립 및 혼란을 조성하거나 우회도로를 사전 선점하여 도시

40)정보사령부. (2012). 북한군 참고교리 22-39-1-1 『정보병사단·연대 전술』. 정보사령부, p.125~25.

지역을 우회하는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고속 중심돌파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⁴¹⁾ 또는 도시지역을 우회하기 제한될 경우나 반드시 도시지역을 점령하여야 할 경우에는 경보병사단을 사전 침투시켜 도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대한 선점을 통해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중심공격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라크전에서 볼 수 있듯이 경보병사단에 의해 도시지역 내 주요 건물이나 외곽 감제고지를 사전 확보하여 도심지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소규모 부대의 기갑 및 기계화부대 단위 분권화 작전을 통한 도시지역에 대한 직접 공격도 가능할 것이다.

제 4 절 제 4세대 전쟁을 적용한 북한군 도시지역작전 양상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은 전쟁수행양상에 따라 구분이 될 것이다. 도시지역을 우회하여 중심 진출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나, 우회가 불가하거나 점령을 최초부터 목표로 할 경우의 도시지역작전의 양상은 다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 4세대 전쟁 측면에서 전쟁의 양상이 국지전 또는 제한전쟁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에 따라 북한군은 초기에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략적 도시를 점령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기갑 및 기계화부대를 비롯한 주력은 도시를 최대한 우회하고 후속하는 2세대 보병사단이 도시지역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력에 의한 도시지역을 점령하는 형태의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대전쟁의 추세에서 볼 때도 이라크전이나 시리아 내전, 그리고 러시아의 그로즈니 전투에서 사례를 볼 때 도시지역의 중요성 알 수 있으며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의 양상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 양상에 대한 기본개념은 최초 특수전부대에 의해 도심지 내 침투가 이루어질 것이고, 도시외곽을 고립하고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외곽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애로지역 등 기동로를 확보하며 주요시설

41) 도시지역내 적 고립의 작전목적은 적 부대 격멸보다는 중요지형 확보에 우선을 두고 실시한다. 또한 고립작전의 결정적 목표는 내·외부 방어지대 간의 상호지원을 차단하고, 도시내부 공격발판을 위한 가장 중요지형이 되어야 한다. 김정민. (2010). 『한반도 도시지역 공격작전 수행방안』. 육군대학, p.19~20.

을 타격하는 등 혼란을 조성할 것이다. 이후 적극적인 선견대 운용을 통해 도시 전방의 주요 고지를 공격하여 주요 도로를 개방하는 등 공격 발판을 확보하고 보전 협동공격에 의해 중요 건물군 및 구역별로 한국군을 소멸하여 지대를 점령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최초 특수전부대의 도심지 내 침투는 집단군의 경보병여단과 저격여단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경보병여단과 저격여단은 군단의 특수작전부대로서 기본 역량이 습격대의 임무를 하는 등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⁴²⁾, 최초 배치를 고려 시 경보병여단은 군단의 후방지역에서, 저격여단은 야전군의 후방지역에서 주로 임무수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의 도시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 시 북한군이 우회가 아닌 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야전군의 후방지역에 위치하므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군 도시지역작전에서의 도심지 내 침투는 저격여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경보병여단과 저격여단의 임무와 훈련의 차이점을 고려 시 저격여단에 의해 시가지 전투 및 도시의 주요 지역 점령, 암살, 테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이다. 2작전사령부 지역의 도시에 대해서는 전략적 배합 임무를 수행하는 폭풍군단 예하 경보병여단, 저격여단이 교란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집단군의 저격여단이 임무수행 할 것으로 판단한다. 전쟁 개시 이전에는 대규모 침투가 제한되는 만큼 소규모 단위로 침투하여 도시 내에서 테러와 방화, 요인 암살 등 사회혼란을 조성할 것이며, 사이버 전력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첩보수집 및 유언비어 유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개시와 동시에는 대규모로 침투하여 사회혼란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반

42) 공격시 경보병부대(적후활동부대) 임무 : 공격시 경보병부대는 보통 기본역량을 적 후방에서 적후활동부대(습격대)로 이용한다. ① 적의 지휘를 파탄시킨다. ② 적의 유생역량과 핵 무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타격수단들을 소멸파괴하여 후방공급을 파탄시킨다. ③ 적 예비대들의 기동을 파탄시킨다. ④ 적 배후를 습격, 교란하며 적을 피로 약화 시킨다. ⑤ 중요한 계선(대상물)을 적보다 먼저 차지하거나 빼앗아 유지한다. ⑥ 전선 연합부대들과의 협동동작 밑에 적 집단군에 대한 포위를 실현한다. ⑦ 이 밖에 아군지대에서 적 특공대를 소멸하며 높은 속도로 전진하는 땅크, 기계화부대의 뒤를 자르려는 적을 소멸한다. 북한군 군단-사단 공격·방어, 정보사령부, 2003

전여론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전쟁 초기 대량살상무기 공격 및 대규모 특수전부대에 의한 침투로 후방지역을 교란할 것이며, C4I 시설 및 국가기관을 타격하고 주요 요인을 암살할 것이다. 또한 전기·급수·통신·가스·저유 등 5대 도시기반시설을 파괴하여 도시기능 마비를 시도할 것이며, 국가기간산업 및 가스저장소·화학약품 저장소 등의 유해시설과 지하구조물을 파괴할 것이다. 특수전부대에 의한 직접적인 교란 및 타격과 병행하여 사이버 전력은 전산망을 해킹하여 사이버 공격을 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첩보수집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으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는 고정간첩 및 지역 내 중복세력, 동조세력과 연계하여 장기 은거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외곽 고립 및 퇴로차단은 경보병사단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다. 경보병사단의 기본 임무가 중요지형 선점 및 확보, 한국군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우회대 운용⁴³⁾인 만큼 도시지역작전에서의 경보병사단은 주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지형을 선점하고 퇴로를 차단하여 한국군의 증원 및 퇴각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경보병사단은 일부 역량은 우회대로 사전에 계획된 퇴로차단의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기본 역량은 운수중대를 활용하여 중요지형을 선점할 것이다. 도시지역 외곽의 주요 감제고지를 사전에 점령하여 도시를 고립시키고 불안감을 조성시키며 혼란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지역작전의 여건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도시지역의 밀집된 인구를 고려 시 사전에 침투한 특수전부대에 의한 교란과 타격 등 혼란을 조성할 시 피난민이 발생하고 주요 도로에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때 북한군이 도시지역 외곽의 감제고지를 사전에 점령한다면 주요 도로를 통제할 것이고 한국군 및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된 도시 내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한국군의 방어작전은 그 효과를 발휘하기 매우 제한될 것이다. 또한 도시 외곽 감제고지 점령은 기갑 및 기계화부대 등 집단군의 주력의 진출을 위한 도로를 통제하는 등 여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경보병사단의 도시지역작전에서의 전투수행모습은 기존 교리에서 기갑 및 기계

43) 정보사령부. (2012). 북한군 참고교리 22-39-1-1 『경보병사단·연대 전술』, 정보사령부, pp.125~126.

화부대의 중심성과 확대를 위한 중심기동 여건보장 부대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고속 중심돌파를 위해 주요 건부나 우회도로를 선점하는 것에서 도시지역 외곽 감제고지를 점령하여 주력의 돌파를 보장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경보병사단은 애로지역 등 기동로 확보를 하여 도시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를 차단하고 우회대로 운용되어 한국군 퇴로를 차단할 것이다.

도시지역작전은 기본적인 공격작전과는 달리 다양한 조건 하 특수작전의 형태로 선견대에 의한 공격발판 확보가 필요하다. 도하작전이나 상륙작전 등과 같이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공격기세를 유지하거나 효과적인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견대의 임무는 집단군 차원에서는 전술적 2제대에 위치한 보병사단이 수행할 것이다. 기존 도시지역작전 양상에서 기갑 및 기계화부대가 도시를 우회하고 후속하는 2제대 보병사단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작전이 수행되는 것을 고려 시 2제대 보병사단의 일부가 선견대의 임무를 수행하여 도시지역작전에서의 기초를 세우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선견대는 전차중대, 공병중대, 화학중대, 일부 포병부대와 대전차부대로 증강되어 편성될 것이며 주요 도로 방향별로 돌파를 실시하여 도시 전방의 주요 고지 및 중요지형지물을 공격할 것이다. 이후 도시 시가지 내부로 진입하기 용이한 주요 도로를 개방하는 임무에 주력할 것이다.

선견대의 공격발판 확보 후에는 보전 협동공격에 의하여 주력이 진출하여 도시지역작전이 수행될 것이다. 도시지역 내 진입은 경보병부대가 선도 하에 기계화부대가 후속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보전협동 공격에 의하여 주력이 진출하는 것은 기존 교리와 동일하나 이 때 전술적 2제대의 보병사단이 아닌 경보병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이하다. 경보병사단은 기존 정규 보병사단을 모체로 하여 창설된 부대이며 편성 면에서도 특수전부대의 규모보다는 중대가 약 120명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보병중대와 유사하다. 또한 부대 운용이 경보병여단과 달리 대대 ~ 타격대 단위로 운용이 되는데 이는 최소 분대 단위로 운용되는 특수전부대의 양상과는 상이하며 오히려 전술적으로 운용이 되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한 도시지역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그것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경우를 보아도 전투력이 우수

하다고 평가되는 전방사단 또는 상비사단이 평시 완전편성이 되지 않고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되는 향토사단보다 도시지역에서 작전수행을 잘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평시 도시지역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의 경우도 일반적인 보병 전투를 수행하면서 교육훈련을 하는 2제대 보병사단이 도시지역작전에서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그것에 특성화된 교육훈련을 하며 편성이 된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시지역작전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그에 따라 평시 시가지 전투를 교육훈련으로 하면서 소규모 분권화된 작전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경보병사단이 도시지역에서는 더 효율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1999년의 체첸 2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로즈니 공격간 러시아는 보병으로 구성된 강습분견대를 편성하여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하였다.⁴⁴⁾ 1차 체첸 전쟁간에 중장비의 보병을 통해 도시지역작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⁴⁵⁾하여 무기와 장비를 경량화한 보병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작전을 구상하였고 그것이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경보병사단은 소규모 단위 분권화 작전수행을 할 것이다. 기갑부대를 보병이 엄호하고 보병부대 생존성 취약점을 기갑부대로 보완하면서 중요 건물군 및 구역별로 한국군을 소멸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로즈니 전투간에도 1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한 구역씩 점령하는 형태로 작전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공격양상은 분권화 작전 수행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보병사단의 작전수행 양상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도시지역작전은 작전의 특수성을 고려시에 일반적인 보병사단 보다는 경량화 되어 있고 분권화 작전 수행을 잘 하는 부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북한군의 경보병사단은 편성 및 교육훈련 면에서 집단군의 2제대에 위치하여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대로 판단된다.

북한군의 특수전부대는 제대와 편성, 성격에 따라 임무와 운용면에서 상이함을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특수전부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보병여단

44) 김도형. (2007), 『한국지역에서 기계화부대 도시작전 수행방안』. 육군대학, pp.12~13.

45) 김호립. (2009). 『도시지역 공격작전간 기갑 및 기계화부대 운용 방안』. 육군대학, pp.9~16.

과 저격여단은 전쟁 개시 이전 또는 개시 직후 도시지역으로 침투하여 사회 혼란 및 교란을 할 것이나 경보병사단은 작전진행 과정에서 운수중대를 활용하여 기동속도 유지를 통해 도시 외곽의 주요 감제고지를 선점하여 주력의 진출을 보장하고 도시를 고립시키며 한국군의 증원 및 퇴각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후 집단군의 2세대 보병사단이 선전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격발판을 제공하면 경보병사단과 기계화부대가 보전협동 공격으로 도시지역작전을 수행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도시지역작전에서의 보전협동 공격은 소규모 분권화된 작전이 기본이기 때문에 분권화 작전 수행이 용이한 경량화된 보병이 일반적인 정규 보병사단보다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현대 전쟁에서 도시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우회가 아닌 점령 및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되며, 최근 도시지역작전에서의 경량화된 보병이 효과적인 모습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경보병사단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북한군은 제 4세대 전쟁 형태의 전쟁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제 4세대 전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모택동의 인민해방전쟁의 영향을 받았으며 과거 전례를 통하여 지속적인 전략·전술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의 전쟁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하여 상대국 정책결정자 및 국민의 심리를 공격하여 전쟁수행의지를 파괴하는 제 4세대 전쟁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은 이러한 제 4세대 전쟁의 추세에 발맞추어 그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 위주의 전력 증강을 하였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전 배치로 향후 정치적 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전부대를 보유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것이다.

북한군은 기본적인 군사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미군의 증원 이전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지으려 할 것이나, 한반도의 전장환경과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 시 사실상 신속한 종심 진출을 통한 한반도 석권은 제한됨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핵과 투발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차후 정치적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지전 또는 제한전쟁을 추구할 것이다. 국지전의 대상은 전략적 요충지인 수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광역화된 도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도시지역작전이 전체 국면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주요 국면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북한군의 전략·전술의 변화 뿐 아니라 한반도의 전장환경을 고려 시에도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세계 전쟁의 추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시를 우회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요 도시를 점령하는 전쟁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바 정치적·심리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심을 공격하는 제한전쟁의 형태에서는 도시가 최종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러시아의 그로즈니 공격과 이라크전에서의 교훈을 통해 볼 때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의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수전부대는 기존의 임무대로 도시지역 내 혼란과 교란을 수행하면서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경보병사단의 일부역량은 도시외곽의 감제고지를 점령하여 주력의 진출보장 및 한국군 증원·퇴각을 차단할 것이다. 집단군 2제대 보병사단은 선견대의 역할을 통해 공격발판을 제공하고 경량화된 보병인 경보병사단과 기계화부대는 보전 협동으로 공격하되 소규모 분권화된 작전으로 도시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북한군은 한·미 연합전력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전력 위주의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전력증강에 발맞추어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하는 등 현재전쟁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제 4세대 전쟁을 적용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면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도시화의 급속화를 인정하고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고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의 그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제 4세대 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이고, 이러한 제 4세대 전쟁을 우리의 연구와 대비가 가장 취약한 도시지역작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북한이 제 4세대 전쟁을 적용할 것이고 제한전쟁의 측면이라면 도시지역작전이 중점이 될 것이며, 또한 경보병사단 등 특수전부대가 그 위협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도시지역작전 뿐 아니라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 4세대 전쟁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보병사단 등 특수전부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군의 도시지역작전 양상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되었으며, 2007년 창설된

경보병사단의 훈련사례에 대한 첩보가 적어 경보병사단의 도시지역작전에서
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연구간 제한된 첩보는 북
한군 교리 및 교범을 참고하고, 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론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물론 확인된 첩보를 기초로 작성이 되는 것이 최선이겠
으나 북한군에 대해서는 첩보가 제한되며 그림에도 발전을 시키고 적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 시 완전히 확인이 된 과거의 교범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전략·전술의 변화 및 김정은 교시 등을 통한 추론을 통
해서라도 지속적인 교리 발전과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가. 단행본

- 국방부. (2012). 「2012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 국방연구소. (2010). 「중국인민해방군사」. 서울 : 국방부.
- 국방정보본부. (2011). 「북한전략정보자료집」. 서울 : 정보본부.
- 김재명. (2012). 「오늘의 세계 전쟁」. 미리북스.
- 박용환. (2013).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전쟁전략」. 선인.
- 육군본부. (2006). 야전교범 3-23, 「도시지역작전」. 대전 : 육군본부.
- (2010). 「세계유격전사」. 대전 : 육군본부.
- 정보사령부. (2009). 북한군 교리 22-9-2. 「집단군(군단)·사(여)단」.
- (2010). 참고교리 22-9-1. 「특수전부대」.
- (2010). 참고교리 22-9-2. 「북한군 특수작전」.
- (2012). 참고교리 22-9-1-1. 「정보병사단·연대 전술」.
- 조선인민군 출판사. (2006). 「북한 군관·장령용 학습제강」.
- 합참정보본부. (2007). 「군사위협종합집, 특수전부대」.

나. 국내 학술연구 및 연구논문

- 권영근. (2010). “제4세대 전쟁과 한반도” 「주간국방논평」. 제 1324호.
- 김영수. (2013). “북한군 특수전부대 취약점 활용방안” 「군사평론」 제 367호.
- 김인수. (2000). “미래 도시지역 작전 시 효율적인 전투수행 방안 연구”.
- 박창희. (2008).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 1호.
- 박휘락. (2010). “혼합전(Hybrid Warfare)의 개념과 한국군의 수용방향.” 「군사평론」. 제405호.

- 백승주. (2010). “북한 비대칭 전력 위협과 대응책” 『군사학술 세미나 논문집』 .
- 신기철. (2009). “한반도 미래전 양상판단과 대비방향 연구(5대 우위 중심).”
『군사평론』 . 제410호.
- 이광우. (2010). “북한군 전술 주요쟁점 교리 연구” 『군사평론』 . 제 364호.
- 이정환. (2010). “북한 특수전부대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군사
평론』 .
- 이주학. (2011). “북한의 위협과 전략전술의 변화(‘4세대 전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
- 이희남. (2005). “북한군의 GOP 및 FEBA ‘A’ 공격전투 수행방법 연구.”
『군사평론』 제376호.
- 정은영. (2014). “김정은 체제 북한군 전략·전술” 『군사평론』 . 제 429호.
- 조상근. (2012).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 시 대반란작전 수행교리 비교분
석.” 『군사연구』 . 제133집.
- 주재우, 김정용, (2010). “김정일 체제하 북한의 전략·전술 변화”. 『군사평
론』 . 제 407호.
- 최한수. (2013). “제4세대 전쟁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연구.” 『합동대학교』 .
- 하헌민. (2013). “북한의 위협양상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개념 발전방
향” 『군사평론』 . 제 425호.

2. 국외문헌

- Lester W. Grau, Jacob W. Kipp (2000). 『Urban Combat』 . 교육사, p.6.
- Thomas X. Hammes 著. 하광희, 배달형, 김성걸 譯. (2010). 「21세기 전
쟁: 비대칭의 4세대 전쟁」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 Army's Urban Area Assault Operation: Focused on 4th Generation Warfare Utilization

Kwan-Woo, Kim

Major in Military Strateg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e greatest objective lies in firstly studying Generation Warfare & Urban Area Operation theories that are currently gaining interest. Secondly,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4th Generation warfare utilization and wartime performance spectrum based on North Korea Army's varied strategy & tactic to provide a spectrum for North Korea Army's Urban area operation considering Korea peninsula Operation Environment and change in North Korea strategy.

Various research materials have foreseen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conduct warfare relying upon conventional weapons due to the recent changes in strategy and tactics, and will try to conclude the war through political negotiation through limited war. In relation, limited warfare that North Korea is aiming will be conducted in the form of short-time and combined warfare to conquer major urban areas, considering three aspects; firstly changes in the North Korea military will

be conducted in the form of short-time and combined warfare to conquer major urban areas, considering three aspects; firstly changes in North Korean military warfare, Secondly, changes in operation environment such as urbanization in the Korea peninsula and lastly the importance of urban area operation in modern warfare.

Until now, wartime simulation in Korea peninsula has judged the North Korean Army to bypass urban area due to their adherence in short-time warfare. However, now it seems more realistic to judge that warfare will continue in the aspect of limited warfare in order to conquer strategies. Taking into account of the changing warfare throughout the globe, the biggest focus lies in 4th Generation Warfare & Urban Area Operation. We have judged there will be changes in aspects of Army Operation when North Korea operates urban area operation based on their changes to 4th Generation strategy. In order to conquer strategical cities. North Korea will choose to set the environment that enables them to accomplish political & psychological paralysis in the urban area instead of deep infiltration by utilizing urban area turning movement by armored and mechanized division. Especially light armored infantry division that have been established to ensue deep infiltration for armored and mechanized divisions are judged to have the capacity of acting out the role of light armored infantry in urban area operation.

In this paper in our efforts to utilize 4th Generation Warfare we have tried to specify North Korean army's operation spectrum based on special operation divisions and light infantry divisions. However, there has been a lot of limitation on intelligence on special operation divisions and there have also been restrictions on specifying light infantry division's mission and role in urban area operation due to limited intelligence in light infantry division exercises. However, it is strongly believed that there needs to be continuous development and research through inferences by

change in tactics and strategy, recent enemy and Kim-Jeong-Eun status, even if there is limited intelligence on North Korean Army.

【Key-Word】 Urban Area Operation, Wartime Performance, 4th Generation Warfare, North Korean Army, Light Infantry Divisions

